

3. 인문사회계열 논술고사 문항 3

【문제】 (800~1,000자)

제시문 [가], [나]를 참고하여 [다]를 요약하고, 제시문들의 함축된 의미에 기초해 [가]와 [나], [나]와 [다], [다]와 [가]에 대해 각각 두 제시문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단, 유사점은 나머지 한 제시문과 대비해 서술할 것)

[가] 기능론에서는 사회적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으로 전제하고, 사회 불평등 현상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 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된 결과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기능적 중요도가 다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능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 즉 사회적 자원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개인들은 열심히 노력하게 되며, 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론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배로 인한 불평등이 구성원들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므로 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재구성

[나] 갈등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지배 집단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불공정하게 분배한 결과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의 기능적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데,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배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어서 불평등이 나타난다고 본다. 또한 사회적 희소 자원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권력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요인에 의해 차등 분배된다고 주장한다. 사회 불평등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 집단의 권력 및 강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나아가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강조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재구성

[다] 신분은 사실상 인간사회에서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전통사회에서만 존재하였고 근대 사회에서는 소멸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선왕조는 새 왕조의 개창 직후부터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을 설치하고 여말 이래로 문란해진 신분제도를 정비하였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고려시대의 그것을 계승하면서 신분 질서를 정비하여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대별되며 이들은 다시 양반·중인·양민·천민의 4분법적 체제로 세분화되고 있었다. 여기서 각 신분의 권리와 의무는 다르며, 이들은 고정 세습되어 자손에게 전수되고 있었다. 양인 신분 중에서 오랫동안 걸친 관직·문벌·토지소유·노비소유 등의 경쟁을 통하여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는 특권적인 지배신분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특권적 지배신분층은 그들이 차지한 각종 특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법제적으로 피지배신분을 더욱 속박하게 되었다. 조선사회에서 이와 같은 지배신분층의 지위를 확보한 것은 양반이었다. 성리학으로 무장한 양반 관료들은 절대적인 권위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였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법률적으로 신분적인 제약을 가하여 그들의 권위를 보장받으려 하였다.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재구성

양반과 다른 세 계층의 신분 차별이 『경국대전』(1460년)에 법적으로 명문화되었고, 노비는 호적이나 재산목록에도 등록되었다. 18세기 실학자들은 신분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실학의 시조’ 반계 유형원은 신분의 귀하고 천한 차별이 불변의 이치이자 추세라고까지 말한다. “천지에 자연히 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어, 귀한 자는 남을 부리고, 천한 자는 남에 의해 부림을 당한다. 이것은 불변의 이치이고 역시 불변의 추세이기도 하다.”(『반계수록』) ‘실학의 집대성자’ 다산 정약용은 1731년 노비종모법을 실시한 이래 노비가 감소하자 이를 비판하며 오히려 그 이전의 악습인 일천즉천(부모 중 한 사람이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신해년(1731년) 이후 출생한 모든 사노(私奴)의 양처(양인 신분의 처) 소생은 모두 어미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니, 이때부터 위는 약해지고 아래가 강해져서 기강이 무너지고 민심이 흩어져 통솔할 수 없게 되었다. (….) 그러므로 노비법을 복구하지 않으면 어지럽게 망하는 것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목민심서』) 정약용의 ‘나는 나라의 모든 백성이 통틀어 양반이 될까 걱정한다. 다 귀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이롭지 못하다’는 주장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여유당전서』)

- 『중앙선데이』, 2018. 4. 7. 재구성
